

하이퍼정보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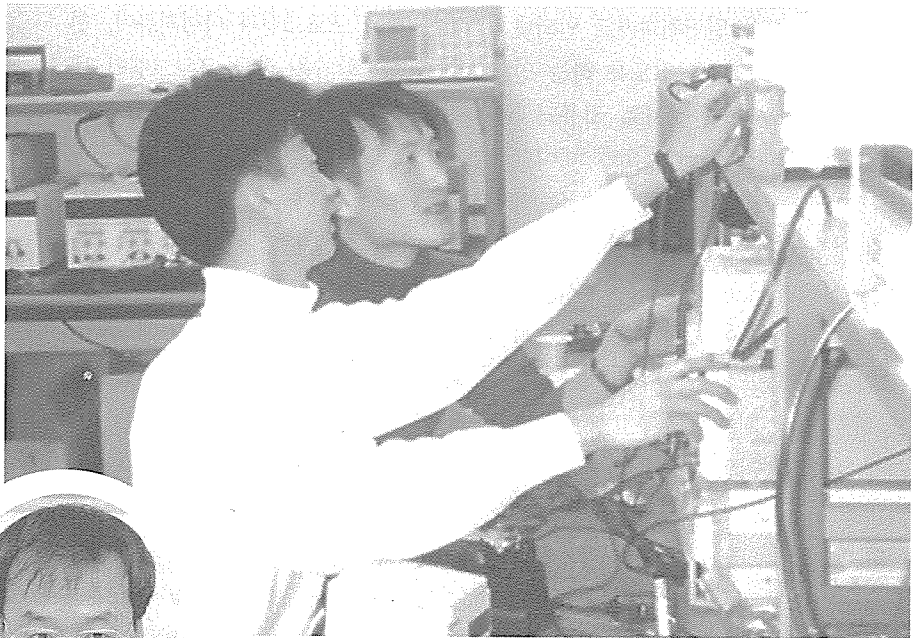
## 인터넷전화·차량용 핸드프리킷 생산 '대덕밸리'의 선두 주자

지난 94년 대덕에서 창업한 '하이퍼정보통신'은 멀티미디어 기기, 네트워크 단말기 등을 전문으로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인터넷전화, 차량용 핸드프리킷 등 10여가지의 통신관련 첨단아이템을 개발 생산해 지난해 2백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이퍼정보통신은 곧 시판될 인터넷전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일반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환장치이다.

최근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여러 곳에 벤처밸리가 등장하고 있다. 서울의 테헤란로 다음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은 대전 대덕지역. 대덕연구단지 출신의 7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대덕 21세기'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3백여개가 밀집해 있다. 그 중에서도 중견급에 해당하는 하이퍼정보통신(사장 최성수/원내사진)은 지난해 2백50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 '대덕밸리' 기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1994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창업기업으로 설립된 하이퍼정보통신은 멀티미디어 기기, 네트워크 단말기, 통신부품과 시스템 제조, 휴대



실험장면



폰 장치를 개발·생산하는 정보통신 전문회사로, 인터넷 전화, PC용 USB 카메라, AV Chip, 차량용 핸드프리킷, 통

신시스템 보드, 메모리 모듈, PCS 충전기 등 10여가지의 통신 관련 최첨단 아이템을 생산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생산라인

### 94년 대덕단지서 창업

올해 하이퍼정보통신이 가장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제품은 곧 나올 ‘헬로우 콜’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전화이다. 헬로우 콜은 일반전화기로 인터넷에 접속해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전화기용 변환장치로 컴퓨터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와 스피커를 별도의 사운드카드에 장착해 사용하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MS Windows멀티미디어 사운드와 완전한 호환이 가능하고, 고품질 스테레오 사운드와 모든 종류의 사운드 파일 재생 기능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일반전화기의 자동응답 기능, 통화내용 녹음 등의 부가 서비스도 가능하다.

저가형 모델로 1차 시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PC용 USB 카메라는 카메라 센서와 메모리 기능을 보완한 2차 제품이 출시단계에 있다. USB(Universal Serial Bus)는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모뎀과 같은 주변기기를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

게 하는 커넥터인데, 누구나 간단히 PC에 접속해서 즉석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이퍼정보통신에서 개발한 PC용 USB 카메라는 기본 제어 프로그램과 이미지뷰어, 인터넷 화상회의용 한글 프로그램인 넷미팅 3.0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상통신·비디오전자우편·즉석디지털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삼성전기가 ‘애니캠’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담당한다. 또한 최근에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ADSL 가입자 모뎀을 개발·완료해 최종 시험단계에 들어갔다. ADSL 모뎀 기술은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의 교환기와 상호 호환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개발과정에서 이를 시험하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 그러나 5년여의 연구 끝에 핵심 하드웨어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통신 프로토콜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었다. “국내의 ADSL 모뎀 개발 업체는 백여개 이상 있지만 자체 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십여개

정도”라는 것이 최사장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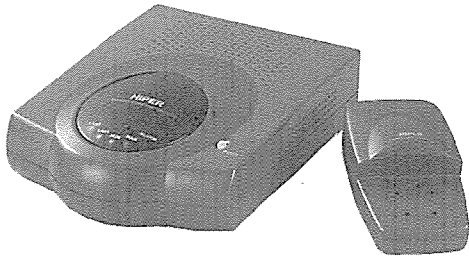
‘헬로우 콜’과 ADSL 모뎀 개발은 하이퍼정보통신이 지난 1994년부터 꾸준히 ATM(비동기전송방식)과 ADSL(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단말기 연구 개발에 투자해 온 성과물이다. 하이퍼정보통신은 창업 초기부터 ADSL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ATM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 왔다.

지금 설계중인 ASIC 칩은 비디오 압축프로세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영상압축기술을 이전받고, 이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이 합류해서, 실제로 상용화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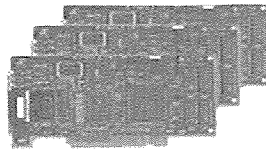
지금까지 영상통신기기들은 저속의 일반전화 라인을 사용하여 화면 끊김 현상이 심하거나, 전용선, ISDN(종합정보통신망)을 사용한 고가의 장비들이어서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통신속도가 56K 모뎀에서 ADSL과 같은 초고속 환경으로 바뀌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통화할 수 있는 영상 통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영상통신 핵심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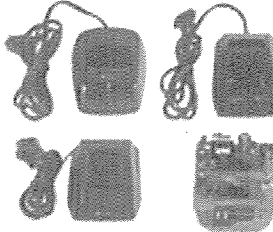
회사에서는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SIC 개발 기술을 확보하고 영상 전화기, 디지털영상 감시장치, IMT-2000 단말기에 사용되는 자체 핵심 기술을 보유하여 급하게 변하는 영상통신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중인 제품은 H.263과 JPEG과 같은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칩 외부에 비디오 프레임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구조가 간단하고 제품을 소형화 할 수



ADSL Router



ATM 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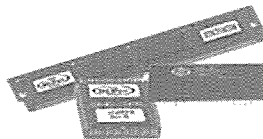
배터리 충전기



PC용 USB카메라



핸즈프리킷



메모리 모듈

대로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회사 설립 다음해부터 연구소를 설립하고,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기술연구개발에 쏟아부었다. 현재 1백20여명의 직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40여명이 기술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가장 큰 취약점이 마케팅 영역이라고 판단, 지난 해에는 서울에 영업 지사를 따로 설치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지금 하이퍼정보통신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는 LG정보통신과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기, 대우통신, 현대전자, LG정밀, 한화 등 국내 주요기업들이다. 아울러 하이퍼정보통신은 자사의 제품이 해외 제품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본격적인 수출을 위해 미국 샌디에이고 지사와 토론토 마케팅 협력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Wescon 99(미 서부 전자박람회) 등 해외전시회에 참여하고, 기업 홍보활동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하이퍼정보통신은 한국종합기술금융 등 5개 벤처캐피털 컨소시엄으로부터 56억원의 벤처자금을 유치했다. 이를 유치해 멀티미디어용 PC카메라, ADSL모뎀, 차량용 핸드프리 등 정보통신 장비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양산을 위한 시설투자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코스닥시장에도 등록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을 졸업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거쳐 회사창업을 선택한 최성수사장은 "앞으로도 당장의 이익보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연구개발 투자에 전념하겠다"고 말한다. 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직 설계 중에 있는 제품이어서 완제품을 보여 주지 못하지만 올 하반기 정도에 현재 회사에서 생산중인 PC 카메라의 차기 모델에 적용할 예정이다. 차량용 핸드프리킷이란 운전중 휴대폰을 들지 않고도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다. 최근에는 기계 내부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와 과전압 방지회로를 내장해 음질과 안정성을 보강한 급속충전방식의 차량용 핸드프리킷을 개발했다. 미국의 경우, 휴대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품의 의무사용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이퍼정보통신은 미국 굴지의 단말기메이커에 제품공급을 위한 협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앞으로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해 목소리로 송수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계획이다.

### 올해 매출 5백억원 목표

하이퍼정보통신은 처음에 대전 유성

구의 한 식당건물에서 자본금 1억6천여만원과 직원 5명으로 출발했다. 초기에는 연구소에서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으로 회사를 꾸려갔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쌓은 전자통신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아, 창업 다음해 13억원의 용역매출을 올렸다.

1996년 S램 모듈을 생산하면서 LG정보통신과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됐지만, 자금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벤처캐피털인 KTB가 이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해줬다. 1997년부터 PCS 충전기를 월 15만대씩 생산하기 시작하고, 비휘발성 S램과 고분자전해질을 사용한 리튬이온 2차전지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정보통신 관련 핵심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매출도 급증해 1997년에 1백30억원, 지난해 2백50억원에서 올해는 5백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급성장은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나름

정미라 <본지 44원기자>